

# 지역민들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 작년 무안공항 이용객 다낭 8만1천명 '최다' 국가별로는 일본·베트남·대만·태국·중국 순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중 4명당 1명꼴로 다낭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공항공사의 국제선 노선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총 32만6천522명으로 그 가운데 24.9%인 8만1천256명이 베트남 다낭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 오사카가 6만3천39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대만 타이베이 4만3천530명, 태국 방콕 4만1천474명, 중국 상하이 1만9천484명, 필리핀 세부 9천886명 순이었다.

다낭의 경우 무안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운행되는 4개 노선 중 유일할 정기노선인 데다 최근 관광지 급부상하며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 역시 대표적인 일본의 관광지인데다 저가항공사들이 정기노선을 운영하며 좌석이 여유가 있고 가격 부담이 적어 이용객들이 급증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9만8천428명으로 무안공항 전체 이용객의 3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운항된 일본 노선은 정기선과 전세기를 포함해 삿포로, 오사카, 기타큐슈, 카고시마, 나고야, 오이다, 오기나와 등 7곳이었으며 이 중 오사카가 64%인 6만3천39명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1위	다낭	8만1천256명
2위	오사카	6만3천39명
3위	타이베이	4만3천530명
4위	방콕	4만1천474명
5위	상하이	1만9천484명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이용객수를 차지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9만33명이 다녀왔다. 베트남은 나트랑캄판, 다낭, 하노이, 호찌민 등 4개 노선이 운항됐으며 다낭이 90.2%인 8만1천256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대만 4만3천530명, 태국 4만1천474명, 중국 1만9천484명, 필리핀 1만6천669명 등이 비교적 이용객수가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러시아(9천769명), 캄보디아(2천891명), 몽골(1천789명), 라

오스(1천231명), 말레이시아(698명), 마카오(350명) 순이었다.

무안공항의 경우 국제선 정기·부정기 노선 확대에 이용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안공항 국제선 연간 이용객은 32만6천522명으로 전년 15만6천949명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이용객 수도 크게 증가해 2017년 29만8천16명에서 지난해에는 54만3천247명으로 연초 목표로 설정된 이용객수 50만명을 훨씬 웃돌았다.

광주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동거리나 시간이 짧아 무안공항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저가항공의 정기노선이 늘어나면서 좌석이 여유가 생기고 가격부담이 적은 것도 무안공항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금호타이어 사내 임직원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단' 이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 '금호타이어 재능기부 봉사단' 광주시 표창

### 임직원 65여명으로 구성 매월 재능기부 봉사활동 지역 소외 계층에 이웃사랑

금호타이어는 사내 임직원들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단'이 지난 7일 광주시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금호타이어 재능기부 봉사단 단장직을 맡고 있는 광주공장장 조강조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이 참석해 표창패를 받았다.

이용섭 시장은 직접 표창을 하며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호타이어 재능기부 봉사단은 금호타이어

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전기·기계 설비 분야의 전문가인 사내기능강사 및 현장 실무자·관리자 등 임직원 65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1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광주시청 및 5개 구청과 상호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매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광산구 우산동의 한 가정을 찾아, 세대주의 정신이상 증세로 거의 3개월 간 방치된 집안을 정리 정돈하는 등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강조 광주공장장은 "금호타이어에 보내주시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매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1일 오전 제7대 탁용석 신임원장의 취임식을 광주CGI센터에서 개최했다.

##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취임

### "좋은 일자리 창출 선도기관으로 최선 다하겠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1일 오전 제7대 탁용석 신임원장의 취임식을 광주 CGI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 앞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으

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탁용석 신임원장은 진흥원 임직원들만 참석한 간단한 취임식 행사를 치루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날 취임식에서 탁용석 신임 원장은 취

임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임직원 모두가 같은 비전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탁 신임 원장은 CJ오쇼핑과 CJ미디어를 거쳐 CJ헬스 성장지원담당 출신으로

홍보 업무를 비롯해 케이블방송, 플랫폼 사업 등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ICT산업,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연간 300억 여원 규모의 예산으로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 보해양조 "동남아 시장 잡는다"

### 내달부터 필리핀에 '천년에' 판매 베트남과도 수출 협의 진출 기대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적극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해양조는 최근 필리핀 현지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천년에'를 수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출 계약은 마무리 된 상태로 오는 3월초부터 현지 소비자들에게 '천년에'를 판매할 계획이다.

'천년에'는 보해양조가 전라도 정동진에 기념해 출시한 제품으로 '1000'을 뜻하는 '밀레니엄 소주'로 현지인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내달께 1차적으로 필리핀

에 수출되는 물량은 2만3천 병 수준이지만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년에'는 필리핀 최대 규모인 'SM MALL'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SM MALL'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복합몰로 쇼핑시설은 물론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매년 큰 폭의 매출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필리핀은 한류에 대한 관심도 뜨겁지만 인구가 1억명이 넘어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중국과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 업체들과도 수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동남아 시장에서 보해양조가 만든 우수 제품인 '천년에'를 끝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 광주혁신센터, 투자유치 활성화 '파트너스데이'

### 오는 19일 전문벤처캐피탈 '인라이트벤처스'와 행사 매월 한차례 정기 원스톱 상담 "기업가치 향상에 최선"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광주혁신센터)는 오는 19일 센터 내 원스톱 투자상담 공간에서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사인 인라이트벤처스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혁신센터 내 원스톱 투

자상담 공간에서 월 1회 인라이트벤처스의 전문 투자파트너가 참여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TIPS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광주혁신센터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참가신청은 광주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

gwangju)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혁신센터는 지난해 벤처캐피탈 인라이트벤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창업·초기기업에 공동 발굴해 지역의 투자 인프라 강화를 지원해왔다. 인라이트벤처스는 대기업 출신의 VC 투자전문가로 이루어진 LLC형 벤처캐피탈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지원에서부터 대기업과의 전략적 사업연계까지 스타트업의 페이스메이커로서 기술형 초기기업의 Value-up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혁신센터는 그동안 307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투자정보 및 네트

워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극복과 성장을 위해 지역 창업기관(대학)과 '투자유치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기업 수요에 최적화된 투자유치 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광주혁신센터 박일서 센터장은 "지역의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향상 및 투자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지역의 투자유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혁신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 전력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 한국전력, 오는 24일까지 접수 최종선정됨에 1천400만원 상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사장 김중갑)이 주관하는 '전력데이터 활용 신(新)서비스 개발 경진대회'가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전의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과 학생,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한전 홈페이지(http://www.kepc.co.kr)에서 11일부터 24일까지 제안서를 다룬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 또는 개인은 한전 아트센터에 마련된 데이터 공유센터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1개월간 서비스를 개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 데이터의 활용도 가능하다.

심사는 완성도, 기술성, 상용화 가능성,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사내 직원과 사외 전문위원이 함께 이뤄지며, 시상은 기업과 학생·일반인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최종 선정 팀에게는 총 1천400만 원의 상

금이 주어지며, 전력데이터 서비스 마켓(EDS-Market)에 해당 서비스를 등록하는 기도가 주어진다.

한전 김중갑 사장은 "한전의 전력 데이터, 타 공공기관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해 보다 가치 있는 대 국민 편의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며 "데이터 공유센터와 전력데이터 서비스 마켓을 통해 데이터 분야 에너지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 농어촌 정보는 '농어촌 알리미'에서

### 빈집·저수율·농지매물·귀농·귀촌 등 통합 서비스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욱)가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알리미' 웹사이트를 개편했다.

농어촌 알리미는 농지, 농촌관광, 귀농·귀촌 등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번 개편으로 ▲농어촌 우수·우수시설 현황 ▲농지·빈집 정보 및 귀농·귀촌 관련 통계 ▲농촌관광지 추천 ▲농어촌 일자리 추천 등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됐다.

특히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농귀촌 거주지 추천', 관심지역의 농업통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관심지역 농업통계' 메뉴가 신설돼 눈길을 끈다.

'귀농귀촌 거주지 추천'에서 농업소득, 노후요양, 자녀교육 등 거주목적에 따라 사

용자가 원하는 지표를 선택하면, 그 결과값 지도에 표시되어 원하는 조건을 가진 거주지를 시·군단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관심지역 농업통계'에서 인구, 농지, 작물, 소득, 귀농·귀촌 등의 통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어촌알리미는 웹사이트로 직접 접속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황재준 정보화추진처장은 "농어촌에는 가치 있는 정보가 많지만 흩어져 있어 찾기가 어려웠다"며 "농어촌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농어촌에 가치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 홍만표 전남지방우정청장 취임

제55대 홍만표(55) 신임 전남지방우정청장이 11일자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경북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한 홍 신임 청장은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특허청

국제식재산 연수원장,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담당 등 우정사업 정책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홍만표 신임 청장은 "급변하는 우편물류, 금융환경에 대응해 내실과 성장의 조화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고객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우체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